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강 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윤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강 현

조강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_____ 박 정 민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YOO JOAN PAEK _____ (인)
위 원 _____ 한 윤 선 _____ (인)

국문초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강현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비행의 예방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인 다문화 청소년 1,3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긴장이론과 다문화청소년 비행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6차년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문항들을 사용하여 종속변수(비행), 독립변수(문화적응스트레스), 매개변수(우울), 통제변수(성별, 거주지역, 가족결손, 연령)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 사용하였으며, 정규분포성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나 다중공선성 확인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bootsrapping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이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bootsrapping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쳤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감정인 우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발생의 예방 등 그들의 바람직한 심리정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다문화청소년, 비행,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일반긴장이론
학 번 : 2018-2154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제 1 절 다문화청소년 ····· 4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 4

제 2 절 청소년비행 ····· 7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 7

2.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 8

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취약성 ····· 8

2)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실태 ····· 10

제 3 절 일반긴장이론 ····· 14

1. 일반긴장이론 ····· 14

2.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으로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 ····· 17

제 4 절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 19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 ····· 19

2. 다문화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역할 ····· 23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6

제 4 장 연구방법 ····· 27

제 1 절 연구모형 ····· 27

제 2 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28

1. 분석자료 ····· 28

2. 연구대상 ····· 29

제 3 절 연구변수 및 측정도구 ····· 31

1. 종속변수 : 비행 ····· 31

2. 독립변수 : 문화적응스트레스 ····· 32

3. 매개변수 : 우울 ····· 33

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 33

제 4 절 자료 분석방법 ····· 35

제 5 장 연구결과 ····· 37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37

2. 비행유형의 특성 ····· 38

제 2 절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40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40

2.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 41

제 3 절 가설검증 ····· 43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44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46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 47

제 6 장 결론 ····· 50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50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 ····· 51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 ····· 52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 53

제 2 절 연구의 함의 ····· 56

1. 이론적 함의 ····· 56

2. 실천적 함의 ····· 57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60

참고문헌 ····· 62

Abstract ····· 78

표 목 차

<표 2-1> 다문화학생 유형 ····· 5

<표 5-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7

<표 5-2> 대상자의 비행 경험 빈도 ····· 38

<표 5-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40

<표 5-4>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 42

<표 5-5>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44

<표 5-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46

<표 5-7>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 48

<표 5-8>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 49

그 림 목 차

<그림 4-1> 연구모형 ····· 27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단일민족 국가, 사회라 불렸던 한국 사회는 근래에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국내유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등이 늘어가면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문화 관련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문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 환경과 정책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약 14만 명이었던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수가, 2017년에는 약 33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십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8).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94만 4천명으로 추정되고,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다문화 가족실태 조사연구, 2018).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증가는 그들의 존속세대인 다문화자녀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2007년 약 4만 4천명이었던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2017년에는 약 22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제시한 2018년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122,212명으로 전체 학생(563만 4천명)의 2.2%에 해당한다. 또한 위의 통계에서 2017년 다문화 출생(18,440명)이 전체 출생(35만 8천

명)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조사에서 2011년 약 3만 8천명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에는 약 12만 2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수에 따른 다문화학생 비율은 0.55%에서 2.17%로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차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영향으로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다 다문화 가족들이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이될 수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긴장요인들과 더불어 특수한 이중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 차이로 인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욱 정체성 형성과 적응적 발달 및 성장에 어려움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긴장 요인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나 비행 등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한다(노충래, 2000; 박순희, 2009; 손한결, 2020; 신예진, 2017; 은선경, 2010 ; 장일식, 2014; 최옥주, 2017). 실제로 송진영. 배미경(2015)은 초・중교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47.4%라고 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중비행에 해당된 폭행(44.2%)과 갈취(57.4%)경험이 일반 청소년의 폭행(34.2%)과 갈취(30.6%) 경험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신재헌, 2013), 2018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1%, 여학생 33.6%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9)을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심리상태가 주변 환경으로 표출되어 위험행동을 유발하는 등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긴장요인이나 부정적 심리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손세영, 2015).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일상으로부터 경험하는 긴장으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는데,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처방식이 존재한다면 다문화 청소년이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여도 비행과 같은 일탈적 적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하에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공격성으로 측정된 외현화 문제(김은영, 2016), 우울·불안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송순택, 2015) 및 우울·불안·위축으로 측정된 내재화문제(우희정, 2013; 전혜숙 & 전종설, 2020; 진은영, 2015; 최선화, 2009)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조혜영, 2020; 한광현 & 강상경, 2019)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김춘경 & 조민규, 2018; 이원기 외, 2019; 한지혜 & 김경희, 2020)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봉언, 2019)는 상반된 결과가 있었지만 이는 측정변인들이나 분석법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져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정적 감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관련 연구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나 비행과 같은 두 변인간 예측 관계를 밝히는 결과들을 보고하는데 그쳤고, 최근에야 이론에서 강조하는 있는 부정적 감정의 매개역할의 검정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방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한지혜 & 김경희, 2020)이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래혁, 2020)에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한 우울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인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비행의 예방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다문화청소년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전통적으로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의 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을 칭하는 것으로 구성원 중 최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김명숙, 이미현, 2019).

국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학자마다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내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늘어가면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법적 협의의 개념의 범위를 넘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순연, 2013; 정효숙, 2017).

다문화가족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따른 다문화가정은 생성의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가능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1].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인 국내출생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의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일컫고 이를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수를 집계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입국한 자녀인 중도입국자녀로 분류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한다.

<표 2-1> 다문화학생 유형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 국내로 입국한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9)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의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 또한 연구마다 상이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마다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학계에서 동일연령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상현, 2013).

청소년과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연령층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 19세 미만, 그리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정누리, 2019).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광의의 개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생활하

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의 조사대상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문화청소년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구수는 약 14만 4천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33만 명으로 십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2018). 2019 청소년백서를 참고했을 때, 다문화가족 자녀수 또한 2007년 44,258명에서 2018년도 237,705명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2018년에 전체 다문화 자녀수의 만 6세 이하의 비율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나타나 역으로 7세 이상 18세 범위에 있는 자녀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만13세 - 18세)의 수는 2007년 약 3,300명에서 2018년 약 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율 또한 2007년 기준 7.7%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13%로 증가하여 점차 많은 수의 다문화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과 동향을 통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비중의 증가와 함께 대표적인 단일민족국가로 꼽혔던 대한민국의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다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아울러 더 많은 연구진행의 필요성과 함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적 실천과 정책시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 2 절 청소년비행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기는 가정의 보호에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독립을 이루는 성인기 사이의 시기로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사회적 역할확대, 다양한 인간관계형성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존재의 확인과 탐색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환경의 자극과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장경수, 2013). 청소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안, 긴장,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동적인 행동, 비행 등 외적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하므로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적 시기보다 비행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즉, 청소년기에 있는 자가 사회의 일반적인 모든 기대에 반하여 사회의 행동규범으로부터 일탈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장사경, 2008). 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범주화에 있어서 정확히 규정된 바는 없어 연구자들의 연구 초점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정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적 비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행하였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은 일탈행동들을 일컫고(Senna & Siegel, 2000; 김미선, 2014; 이재영 & 공태명, 2010), 범죄적 비행은 청소년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인 강도, 절도, 공갈 등 재산비행(김상훈 & 신재헌, 2015; 김해운, 2010),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폭력비행이 포함된다(노성호, 2005; 손윤진, 2014; 조춘범, 2010; 최영자, 1999).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공공의 사회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적 행위인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지위비행과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을 포함하는 범 법적 행위인 범죄적 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성미숙, 2004)

2.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취약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어느 발달시기보다 비행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과 달리 그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다문화적 환경의 특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요인들 때문에 더욱 비행에 취약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이중문화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차이는 자아정체감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영주, 200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은 단순히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성하는 인간관계,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환경까지 전반적인 환경체계 안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다문화가족 부부가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있었고, 자녀 양육방식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식습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원인으로는 성격차이(54.8%) 다음으로 자녀문제(24.1%)의 응답률이 높았고 언어소통의 어려움(21.1%) 또한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가

족체계 내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이 2015년도 조사의 16.1%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간의 다른 양육태도로 인해 다문화자녀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고(송미경 외, 2008), 부부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 불안 등 내재화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최선화, 2009)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청소년비행 선행연구들에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문제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김청송, 2007; 우채영 & 정현회, 2013; 정재훈, 2014)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취약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조사대상 다문화청소년 자녀 중 9.2%가 지난 1년간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5년(6.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은 주로 친구(64.0%)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이웃(12.8%)과 모르는 사람(11.3%)으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해 차별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다문화적 태도를 지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황미애, 2009). 다문화청소년들의 차별경험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여 자아정체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느끼게 될 수 있다(신예진, 2017 재인용). 차별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고(김도희, 2019; 신예진, 2017; 최옥주, 2017)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우울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에 다문화청소년은 비행에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앞서 언급한 이중 문화적응, 차별 등 이중문화라는 특

수한 문화적배경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행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가정 청소년비행의 긴장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점자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의 비행 취약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실태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비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적 수치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이란 비행의 주체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차이 말고는 일반청소년의 비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청소년 비행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과 함께 다문화청소년 비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의 2019년 범죄분석과 여성가족부의 2019년 청소년백서를 참고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흡연과 음주 등의 지위비행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적 비행을 살펴보며, 청소년비행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은 9.4%, 여학생은 3.7%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흡연율은 2016년 9.6%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흡연율은 2016년 2.7%, 2017년 3.1%, 2018년 3.7%로 남학생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율은 2018년 기준 남학생 18.7%, 여학생 14.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성별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17.2%(2016년), 18.2%(2017년), 18.7%(2018년)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12.5%(2016년), 13.7%(2017년), 14.9%(2018)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음주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음주 율, 즉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백분율은 2016년 7.5%에서 2018년 8.9%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청소년백서, 2019).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이나 청소년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9년 범죄분석(대검찰청, 2019)에 따른 청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절대적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수가 2009년(10세~18세) 113,022명에서 2018년(14세~18세) 66,142명으로 감소하고[2],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9년에는 4.5%였던 수치가 점차 하락하여 2018년에는 3.8%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5년 이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3.6%(2015년)에서 3.8~3.9%(2016~2018년)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재산범 (40.1%), 폭력범(29.8%), 교통사범(11%), 강력범(5.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범죄유형 중 주목할 것은 재산범의 비율증가와 강력범죄자의 비율인데, 재산범의 비율이 2008년에 29.4%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0.1%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비율 3.9%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강력범의 전체 범죄자 대비 비율이 10%를 차지한다는 점은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청소년백서, 2019).

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문제시되고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시대변화와 함께 청소년 비행의 상황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

2)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자는 19세 미만(10세~18세)의 피의자를 의미, 2018년 범죄자 연령 집계부터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하여 2018년부터 소년범죄자는 14세 미만의 피의자를 제외한 14세~18세의 피해자를 일컫는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19).

소년 비행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청소년 비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봉언(2019)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 다문화청소년 1,348명의 3개년 비행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에는 무단결석(63명), 폭행(39명), 음주(37명)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2014년에는 무단결석(34명), 음주(34명), 성인물(28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2015년에는 성인물(60명), 음주(41명), 무단결석(25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3년간 무단결석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교적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성인사이트를 접하는 빈도는 점자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부산의 초·중학교와 다문화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2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비행경험수준을 파악한 송진영과 배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7.4%가 비행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위비행은 42.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산비행 24.3%, 사이버비행 17.4%, 폭력비행 1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상운과 신재헌(2014)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한 비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127명의 비행경험을 지위비행, 학습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적 비행 및 성비행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그들의 비행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지위비행의 경우,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은 술 마시기와 노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 아동은 담배 피우기와 술마시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비행과 반항적 비행의 영역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아동 모두 컨닝하기와 부모님께 반항하기, 교사 또는 윗사람에게 대들기의 경험비율이 높은 수치를 보였고, 폭력적 비행의 영역에서는 농촌지역 아동이 타인의 물건 파손, 패싸움이 높은 수치를 보였고, 도시지역 아동은 패싸움, 타인의 물

건파손, 공공건물파손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 성비행 영역에서는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이성희롱, 도시지역 아동의 경우 이성과의 성관계가 각각 비율은 낮지만 성비행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다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비교연구(박명숙 & 송사리, 2010)에서도 도시지역 청소년의 담배피우기가 9.6%로 농촌지역 청소년의 6.0%보다 경험비율이 더 높았고, 농촌지역 청소년의 음주는 14.0%로 도시지역 청소년의 9.5%보다 더 높은 경험비율을 보여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3,300명과 일반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행동을 비교 분석한 연구(진경숙 외, 2010)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음주(17.4%), 업소출입(7.1%), 흡연(6.2%), 인터넷 중독 (5.8%)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은 음주(27.3%), 업소출입(14.8%), 흡연(8.2%), 금품갈취(5.9%) 순으로 나타나 문제행동 상위 빈도 순위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인 문제행동 경험 율은 다문화청소년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위비행에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행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문선영, 2015; 박성훈 & 전영실, 2017)도 보고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점차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일반긴장이론

그 동안 학계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의 관련요인과 예측요인들을 탐색해 오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비행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비행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긴장이론은 Agnew(1992)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긴장이 범죄와 비행행위에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보는 비행이론이고,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범죄는 범죄의 행위를 억제하는 사회적 통제인 사회유대(social bonding)가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의 비행은 비행행위를 교류하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비행이론기반 개념들의 예측력을 확인하거나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긴장이론 기반 연구들도 대부분 두 개념간의 인과관계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gnew(1992)가 제시한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다문화청소년의 긴장(문화적응스트레스)과 일탈적 적응(비행)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함으로써 비행현상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적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일반긴장이론

Robert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긴장이 비행이나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니며(김재엽 외, 2008). 여러 종류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다(문병욱 & 황혜원, 2006). Agnew(1992)는 스트레스 및 긴장(strain)의 유형은 다르지만 범죄와 비행은 모두 여러

긴장요인으로 인해 분노, 우울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오면서 연구자들은 초기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고 보완하였다. 객관적인 긴장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긴장상황에 놓인 개인의 감정, 성향, 사회적지지 등의 영향에 따라 개인이 상황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영향을 받기에 객관적인 긴장 상황과 비행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성향,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탐색하고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Agnew, 2001).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여러 긴장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분노, 우울, 절망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식이 존재한다면 긴장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문병욱 & 황혜원, 2006).

일반긴장이론에서의 긴장 개념은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사회적 부적응 이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유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최영인 외, 2005). Agnew(1992)는 개인적 삶 속에서 생기는 긴장의 원천을 세 가지 즉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인 자극의 소멸 및 부정적인 자극에의 노출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긴장을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원천은 목표달성의 실패이다. 여기서 목표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적 수단인 돈과 더불어 지위/존경, 전율/흥분, 자율성이 이것에 해당된다(Agnew 외, 2018). 이러한 목표달성 실패의 요인은 세 가지 즉 열망과 기대나 열망과 실제달성간의 불일치, 기대와 실제 달성 간의 불일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결과와 실제 성과간의 불일치로 구체화되며, 개인의 달성 기대와 실제 달성 간의 불일치가 단순히 열망하는 것과 실제 달성여부간의 불일치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개인은 열망을 달성하지 못한 것보다 기대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Agnew(1992)에 의하면 개인은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자원이 배분될 것을 기대하며, 이때 공정한 규칙이란 산출(output)과 투입(input)의 비율이 교환과 할당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응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산출이 투입의 양이나 가치와 동등하지 않으면 산출을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로 산출이 투입에 비해 양이 적거나 질이 낮을 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상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거나, 투입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의 보상을 줄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입을 늘리려고 행동하는 것이다(최지원, 2020).

긴장의 두 번째 원천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며, 긍정적 자극은 대체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으로, 사회나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긴장은 긍정적 자극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유발되며, 이는 사회적인 것이거나 비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전홍빈, 2018). 부모님의 이혼 또는 별거, 친구의 질병 또는 사망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단절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전학, 학교로부터의 정학, 물질적 박탈 등에 의해 발생되는 긴장이다(김준호 외, 2013; 이성식, 2011; Agnew, 1992; Agnew 외, 2018). 이러한 유형의 긴장을 경험한 사람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해 생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일탈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긴장의 세 번째 원천은 부정적 자극에의 노출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위협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의 긴장을 의미한다(전홍빈, 2018). 부정적 자극의 경험은 부모의 학대, 친구들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고통을 주는 요인과 직면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포함하며(김준호 외, 2013) 학업부진, 범죄의 피해, 차별/편견, 체벌, 신체적 고통, 질병, 공해, 소음, 자연재해 등도 부정적 자극에 해당된다(전홍빈, 2018; 최영인 외, 2005; Gabbidon, 2010).

2.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으로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달과 변화는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들은 글로벌화, 네트워크의 발전 등의 사회 환경을 의미하는 거시적인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의 미시적인 환경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주로 인해 타국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문화적응과정에 의해 정체성발달에 양면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청소년기에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 새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은 다문화 속에서 타민족의 특성을 배우고 수용하며 타민족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등 자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노충래, 2000).

다문화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 연구들이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올바른 역량과 인성을 갖추어 성인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긴장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다양한 긴장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그 노력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의 긴장 개념을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던 긴장요인들은 친구긴장, 부모긴장, 긍정적적 자극, 충동성, 우울감, 목표달성실패(박정선 & 황성현, 2013; 이성식외, 2013; 황성현 & 이강훈, 2013; 황성현, 2015;), 학교규칙, 교사, 교우관계 관련 학교부적응(최진실, 2017), 부정적 긴장요인으로 자녀학대와 방임(김재엽외, 2008; 전홍빈, 2018), 가족긴장과 학교긴장(송아영외, 2009), 교사 폭언・체벌, 부정적 삶 경험, 부모 폭언・체벌, 친구문제(문병욱 & 황혜원, 2006), 목

표성취 실패인 학업과 경제스트레스와 부정적 자극인 가족, 친구, 외모 스트레스(장경수, 2013)로 다양하게 나타나 일반긴장이론의 긴장개념이 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들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민 유형은 외모, 가족과의 갈등, 공부(성적, 적성 등), 진로-진학 및 직업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고, 이중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박순희, 2009; 손한결, 2020; 은선경, 2010), 그리고 외모의 차이로 인한 사회와 학교에서의 차별(신예진, 2017; 최옥주, 2017) 등의 더 많은 긴장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장일식, 2014).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관련 긴장요인들은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홍빈(2018)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측정된 문화적응압박이 언어능력압박이나 문화유지압박보다 더 높았고, 이 문화적응압박 스트레스가 학교공부적응이나 학교친구적응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요인들 외에 또 다른 긴장요인이 존재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긴장을 고강도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문화청소년들은 더욱 비행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에 비해 긴장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긴장으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여 비행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관련 긴장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반인 일반긴장이론에서의 긴장 개념이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인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긴장요인을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조작화하여 비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4 절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사회문제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청소년 비행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요인들과 비행의 관계를 확인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주로 일반청소년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지위비행, 지위비행과 일반비행, 경비행과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관련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관련 긴장요인들은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긴장요인으로 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연구들을 포함하여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본 청소년대상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조수연(2019)이 사회적 배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하지 않았고,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내용에 이미 사회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교육적, 심리적, 관계적배제로 측정된 사회적 배제 변수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동시에 포함시킨 회귀분석을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유사하게 다문화청소년인 몽골이주노동자자녀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와 외현화문제(공격성,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홍진주(2004)는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문제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외현화문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런 결과 또한 연구대상자의 약 90%정도가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80%정도가 3년 미만의 짧은 거주기간을 지닌 특성이나 비행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외현화 문제(비행, 공격성)로 측정된 심리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김은경, 2016; 우희정, 2013; 진은영, 2015)을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은경(2016)은 인천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206명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비행,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고, 우희정(2013)은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현화 문제(위축, 우울, 불안)나 외현화 문제(비행,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진은영(2015)도 경남지역 다문화가족 아동인 초등학생 3-6학년 201명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우울.불안)와 외현화 문제(공격성)로 측정된 심리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할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긴장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박정선과 황성현(2013)연구에서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 충동성, 우울감 및 친구긴장이 중학생의 지위비행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지위비행과 일반비행을 합한 비행에 대해서 긍적적 자극의 소멸, 목표달성의 실패, 충동성, 친구긴장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불안, 우울, 부모긴장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황성현 & 이강훈, 2013), 고교생의 14가지 비행경험에 대해 긍정적 자극의 소멸, 친구긴장, 부모긴장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

나 부정적 자극으로 측정한 충동성, 우울감, 불안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황성현, 2015). 반면에 이성식과 전신현(2013)이 중학생들의 비행경험에 대해 부모긴장은 정적 영향요인이었으나, 학교긴장과 친구긴장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에 일반긴장이론의 3가지 원천인 목표달성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노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 자극으로 측정한 충동성, 우울감, 불안감, 부모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있거나 없었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변인들 간 관계는 반복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울, 불안, 충동성을 부정적인 자극자체로 보기보다는 일반긴장이론의 부정적 감정으로 조작화하는 것이 이 이론의 설명에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경수(2013)는 중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위, 폭력, 재산 비행경험과 목표성취실패(학업과 경제스트레스)와 부정적 자극(가족, 친구, 외모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유무, 스트레스, 성적 변인들의 설명력을 20.0%로 보고하였고, Church, Wharton과 Taylor의 연구(2008)에서도 가정분위기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신재헌, 2013 재인용)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해소를 통한 비행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긴장요인으로 해서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교부적응(학교규칙, 교사와 교우관계)이 경비행과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최진실, 2017), 가정폭력과 학교부적응 긴장요인과 중학생의 지위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송아영, 박경나와 정세정(2009)도 학교부적응 요인만 지위비행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밝혔으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최지원, 2020)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행경험에 학교부적응이 중요한 긴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의 비행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가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청소년의 구체적인 학교부적응 긴장요인들과 비행의 인과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부정적 긴장요인으로서 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김재엽, 송아영과 박경나(2008)는 자녀학대경험이 지위비행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윤진영(2003)은 14~19세에 해당되는 일반청소년과 범죄청소년, 상담소나 쉼터 청소년의 신체학대가 비행(지위, 약물, 성, 재산, 폭력)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학대와 방임을 긴장요인으로 하고 학교생활부적응을 비행으로 조작화한 연구에서 방임만 비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전홍빈, 2018)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비행 개념 측정문제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소년의 학대가 비행의 중요한 부정적 자극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대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문고교와 실업고 2학년을 대상으로 7개 긴장요인 (부정적 삶 경험, 부모 폭언・체벌, 교사 폭언・체벌, 시험관련 스트레스, 친구문제, 성적, 가족수입)과 비행관계를 조사한 문명욱과 황혜원(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폭언・ 체벌, 부정적 삶경험, 친구문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재헌(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대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방식과 언어문화, 부모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청소년의 폭력비행은 가족결손, 양육방식과 언어문화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행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 일반청소년 대상 연구들이었는데 그 결과들에서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에의 노출과 같은 세 가지 긴장원천에 관련된 다양한 긴장요인들이 비행의 예측요인들로 밝혀졌으나 부정적 자극으로 측정된 충동성, 우울, 불안은 비행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도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이 또한 비행을 측정하기보다는 대부분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측정한 사회심리적응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 다문화청소년의 긴장과 비행관련 연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긴장을 발생시키는 환경 속에 놓인 다문화 청소년의 긴장요인들과 이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역할

Agnew(1992)는 긴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긴장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일탈적 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았고, 긴장과 일탈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대처전략 중 하나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 뿐 만 아니라 긴장으로 인해 유발 된 우울, 분노,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긴장이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고, 청소년은 일상에서 겪는 긴장으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 긴장과 부정적 감정의 관계나 부정적 감정과 비행의 관계와 같은 두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긴장과 우울의 관계나 우울과 비행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불안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송순택, 2015)이나 우울・불안・위축으로 측정된 내재화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우희정, 2013; 전혜숙 & 전종설, 2020; 진은영, 2015; 최선화,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조혜영, 2020; 한광현 & 강상경, 2019)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긴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들은 차별경험(신예진, 2017; 유지희 & 황숙연, 2018), 사회적 차별과 학교폭력피해경험(최옥주, 2017),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래혁, 2020), 방임(한지혜 & 김경희; 202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드물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김춘경 & 조민규, 2018; 이원기 외, 2019; 한지혜 & 김경희, 2020;)와 비행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봉언, 2019)는 상반된 결과가 있어서 우울과 비행의 관계는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들어 청소년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진술을 검정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인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한지혜・김경희(2020)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방임이 그들의 우울이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방임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유의미한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래혁(202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이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비행의 영향관계에 대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했던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김재엽, 송아영과 박경나(2008)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2학년 학생 1140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긴장요인으로 자녀학대경험과 우울, 지위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학대경험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학대가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최진실(2017)이 중학교 3학년 2259명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장요인으로 측정한 학교부적응(학교규칙, 교사/교우관계)이 부정적 감정(공격성,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학교부적응과 부정적 감정은 경・중 비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감정인 공격성과 우울이 경・중 비행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우울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방임이나 학교폭력 피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고, 또한 일반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자녀학대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

부적응이 경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으로서 우울이 다양한 긴장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매개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긴장요인으로 나타났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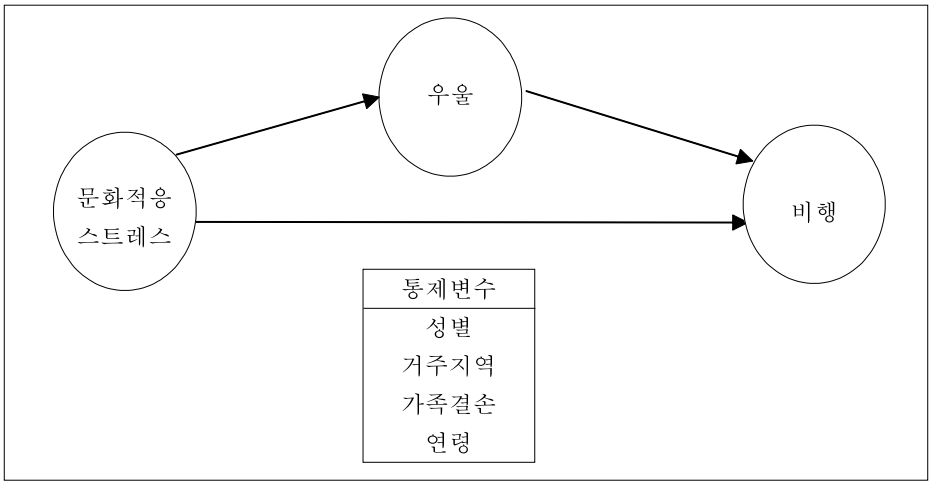
연구가설 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은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을 통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그림 4-1> 연구모형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이론에 근거하여 <그림 4-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행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해 봄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예측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자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5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2019년까지 총 9개년에 걸쳐 종단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배경특성, 학교생활영역, 심리사회적응영역, 신체발달영역, 부모자녀관계 영역, 정책지원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이루어 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문화청소년패널의 표본수집 방법은 1단계에서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 재학학교 분포를 이용하여 집단을 층화하여 표본학교를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층 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여 자체가중설계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2011년 1차년도 조사기준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00명 및 그의 학부모 1,600명이었다. 이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른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4,452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추출률은 35.9%로, 조사의 신뢰성 및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원이 담당 가구에 컨택 후,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n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6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행을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매개

변수인 우울이 모두 측정된 가장 최근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6차년도 조사는 해당 다문화청소년 대부분이 중학교재학 중인데 이는 최근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 연령층에 진입하고 있어 이 연령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를 가진 개인을 제외한 다문화청소년 패널 6차년도 다문화청소년 1,31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분석대상에는 분석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광의의 개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리고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생활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칭하고 이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유사한 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였기에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주요조사 대상임을 밝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 결측치를 제외한 1,311명의 데이터의 조사대상 연령에 따른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연령의 범위는 14세부터 18세이었고, 그 비율은 15세(88.6%), 14세(7.6%), 16세(3.4%), 17세(0.4%), 18세(0.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14-15세로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었다. 또한 6차년도 자료에서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외국인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6.5%,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가 3.2%, 부모 둘 다 외국

인인 경우가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보다 조사대상이 연령층에 있어 좀 더 협소하고 실제 연구 분석대상 1,311명은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대다수임을 밝히는 바이다.

제 3 절 연구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비행

본 연구에서 비행이란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과 강도, 절도, 폭력, 불법음란물접근 등의 범죄적 비행을 모두 포함한 청소년 비행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청소년 비행척도는 이경상 외(2011)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사업보고서의 비행 항목 척도를 수정 보완한 2016년 6차년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문항(57번)을 사용한다.

이 척도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음주)', '가출한 적이 있다(가출)',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다(무단결석)',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성인사이트이용)',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절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폭력)',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갈취)', '폭력써클(폭력써클)에 가입한 적이 있다',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패싸움)',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키스경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성관계경험)'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Cronbach's α=.544). 각 문항은 '있다', '없다' 경험 유무를 측정하는 것이고, 연구를 위해 12가지 비행의 경험 유무 '있다=1', '없다=0'의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 중 12가지 비행에 대해 단 한 번도 비행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0값(비행을 하지 않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분포는 정규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변수의 분포가 좌편향(Positively Skewed)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의 분포가 좌편향 되어있을 때 해당 변수 값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것은 좌편향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주기에(손영민, 2016 재인용, Tabachnick & Fidell, 200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사용하였다(Ln[다문화청소년 개인 비행 총합+1]). Ln(0)의 값은 정의되어지지 않고 극한의 개념으로 따져보았을 때 $\lim_{x \to 0+} \log x = -\infty$이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개인 비행 총합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연로그를 취하기 전 종속변수의 왜도는 5.04 그리고 첨도는 33.34 이었으나, 자연로그를 취한 후의 종속변수는 왜도 3.11, 첨도 10.07로 Kline(2005)가 제시한 왜도 3미만, 첨도 10미만의 정규성 기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2. 독립변수 :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Hovey & King(1996)이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스트레스(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rative Stress)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홍진주(2004)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홍진주(2004)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문항을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대상에 맞게 수정한 2016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6차년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Cronbach's α=.756). 각 문항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1,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2, 걱정하는 편이다=3, 매우 걱정한다=4'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매개 변수 :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이경상 외(2011)가 한국판 자기보고식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과 관련된 13문항을 추출한 후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6차년도)의 문항을 사용한다.

이 척도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Cronbach's α=.905).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거주 지역, 가족결손 및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다문화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먼저, 일반적으로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청소년 비행 차이가 있었다(서봉언, 2019; 송진영 & 배미경, 2015; 장일식, 2014). 박명숙과 송사리(2010)는 도시와 농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지위비행, 학습비행, 반

항적 비행, 폭력적 비행, 그리고 성비행의 다섯 가지 하위비행역역으로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행 경험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신재헌(2013)은 가족결손이 도피비행,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송진영과 배미경(2015)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 경험수준이 높음을 밝혔고, 장일식(2014)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라 비행경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분석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성일 경우 0, 남성일 경우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거주 지역은 농촌지역일 경우 0, 도시지역일 경우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가족결손은 별거(이혼, 별거, 사별)일 경우 0, 동거(결혼, 동거)일 경우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SPSS 25.0 통계 프로그램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의 예측관계에 작용하는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rapping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긴장, 우울, 및 비행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제변수와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정도를 구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H_1 : \mathrm{Ln}[Y_{H_1}] = \beta_0 + \beta_1 X_1 + [Control\,Variable] + V_{H_1}$$
$$H_2 : \mathrm{Ln}[Y_{H_2}] = \beta_a + \beta_b X_2 + [Control\,Variable] + V_{H_2}$$
$$H_3 : \mathrm{Ln}[Y_{H_3}] = \beta_{\mathrm{I}} + \beta_{\mathrm{II}} X_1 + \beta_{\mathrm{III}} X_2 + [Control\,Variable] + V_{H_3}$$

위의 회귀식에서 $\mathrm{Ln}[Y]$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수준을 나타내며, X_1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X_2는 우울을 나타낸다. β는 각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V는 각 회귀식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 청소년 1,311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거주 지역, 연령, 부모의 외국인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311

변 수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성별	남성	646	49.3
	여성	665	50.7
	계	1,311	100.0
거주지역	도시지역	931	71.0
	농촌지역	380	29.0
	계	1,311	100.0
연령	14	99	7.6
	15	1,162	88.5
	16	44	3.4
	17	5	0.4
	18	1	0.1
	계	1,311	100.0
부모의 외국인여부	어머니만 외국인	1,265	96.5
	아버지만 외국인	42	3.2
	부모 둘 다 외국인	4	0.3
	계	1,311	100.0
가족결손	동거(결혼,동거)	1,200	91.5
	별거(이혼, 별거, 사별)	111	8.5
	계	1,311	100.0

분석대상자인 1,311명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이 646명(49.3%), 여성이 665명(50.7%)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분포는 도시지역 931명(71.0%), 농촌지역 380명(29.0%)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분포는 15세(88.5%), 14세(7.6%), 16세(3.4%), 17세(0.4%), 18세(0.1%) 순으로 나타났고, 대상자 부모의 외국인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1,265명(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42명(3.2%), 부모 둘 다 외국인인 경우가 4명(0.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가족결손을 확인한 결과 별거(이혼, 별거, 사별)의 형태가 111명(8.5%)로 나타났고, 동거(결혼, 동거)의 형태는 1,200명(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비행유형의 특성

<표 5-2> 대상자의 비행경험 빈도

N=1,311

구 분	비행 경험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흡연	20	1.5	1,291	98.5
음주	48	3.7	1,263	96.3
가출	149	1.1	1,297	98.9
무단결석	30	2.3	1,281	97.7
성인사이트 이용	81	6.2	1,230	93.8
절도	9	0.7	1,302	99.3
폭력	9	0.7	1,302	99.3
갈취	2	0.2	1,309	99.8
폭력써클	0	0.0	1,311	100.0
패싸움	1	0.1	1,310	99.9
키스경험	10	0.8	1,301	99.2
성관계경험	1	0.1	1,310	99.9

전체 분석대상 다문화청소년 1,311명 중 최소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156명(11.9%)이고 단 한 번도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은 1,155명(88.1%)으로 나타났다.

비행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연의 경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0명(1.5%),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291명(98.5%)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에서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8명(3.7%),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263명(96.3%)으로 나타났다. 가출은 14명(1.1%)의 청소년이 경험이 있었고 1,297명(98.9%)이 경험이 없었다. 비행 유형중 성인사이트 이용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1명(6.2%),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230명(93.8%)으로 나타났다. 키스경험, 절도, 폭력, 갈취, 패싸움, 성관계경험의 경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가 10명(0.8%), 9명(0.7%), 9명(0.7%), 2명(0.2%), 1명(0.1%), 1명(0.1%)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경험비율이 낮은 비행유형이었고, 폭력써클의 경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제 2 절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5-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종속변수	비행 (Ln[개인 비행 항목합산+1])	0.04	0.13	0.00	0.85	3.11	10.07
독립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1.41	0.32	1.00	3.70	1.40	3.94
매개변수	우울	1.71	0.58	1.00	4.00	.40	-0.21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의 평균은 0.04, 표준편차는 0.13로 나타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1.41, 표준편차는 0.32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평균은 1.71, 표준편차는 0.58로 나타났다<표 5-3>.

2.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검정에 앞서 분석에 투입되는 연구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분석(Pearson's *r*)을 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와 같다.

먼저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r=.072, p<0.01)와 우울((r=.113, p<0.01)은 비행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r=.29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비행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성별, 거주지역, 가족결손, 연령과 종속변수인 비행경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r=.190, p<0.01)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변수들 간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8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Gujarati 외, 2009), <표 5-4>에 제시한대로 본 연구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될만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4>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성별	거주지역	가족형태	연령	비행 [ln(개인 비행 항목 합산)]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성별	1						
거주지역	.034	1					
가족결손	.004	-.037	1				
연령	.16	.22	.003	1			
비행 [ln(개인 비행 항목 합산)]	.190**	.016	-.001	.029	1		
문화적응 스트레스	.083**	.047	-.049	.069*	.072**	1	
우울	-.110**	.071*	-.032	.004	.113**	.291**	1

* p<.05, ** p<.01, *** p<.001

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분석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전, 먼저,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예측치와 표준화된 잔차 사이에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하였고, 모든 회귀모형에서 그 수치가 1에서 3사이로 2에 수렴하는 값이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고, 그 값이 모두 1에서 2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인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와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5>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Model 1				
구분		종속변수 : 비행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47***	.007	.185
	거주지역	.002	.008	.007
	가족결손	.001	.012	.001
	연령	.008	.010	.022
독립 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002*	.001	.057
상수		-.027***	.027	
R^2		.040		
Adjusted R^2		.036		
F		10.818***		

* p<.05, ** p<.01, *** p<.001

Model 1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이다. 회귀모형 Model 1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은 10.818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수정된 R^2은 .036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제변수들이 다문화청소년 비행의 변량을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B*(비표준화된 계수) 값이 .002(p<.05)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1단

위 만큼 증가하면 비행은 약 0.2%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이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B=.047, p<.001)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3) https://kenbenoit.net/assets/courses/ME104/logmodels2.pdf, 2020.11.12. 검색.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표 5-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Model 2				
구 분		종속변수 : 비행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52***	.007	.204
	거주지역	.000	.008	-.001
	가족결손	.001	.012	.002
	연령	.009	.009	.025
독립 변수	우울	.032***	.006	.136
상수		-.055*	.025	
R^2		.055		
Adjusted R^2		.051		
F		15.169***		

* p<.05, ** p<.01, *** p<.001

Model 2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우울과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이다. 회귀모형 Model 2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은 15.169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수정된 R^2은 .051로 우울과 통제변수들이 다문화청소년 비행의 변량을 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우울의 *B*(비표준화된 계수) 값이 .032(p<.001)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1단위 만큼 증가하면 비행은 약 3.2%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B=.052, p<.001)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Model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Baron & Kenny, 1986), 그 결과를 <표 5-7>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수들이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향을 미쳐야하는데, 이는「연구가설 1」의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음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31.360,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B=.493, p<.001).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설명량은 10.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0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3단계 조건이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

1단계 모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B=.002(p<.001)으로 유의미했으나, 3단계 모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동시에 투입되자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용권, 2012; 이선아, 2014 재인용).

3단계의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051로, 이 모형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의 변량의 5.1%를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R^2의 변화량은 .015로 나타나, 이는 1단계 모형의 R^2값에 비해 3단계 모형의 R^2값이 0.015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표 5-7>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Model 3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문화적응스트레스 → 비행			문화적응스트레스 →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 비행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변수	성별	.047***	.007	.185	-.146***	.028	-.137	.051***	.007	.203
	거주지역	.002	.008	.007	.072*	.031	.061	.000	.008	-.001
	가족유형	.001	.012	.001	-.028	.050	-.014	.001	.012	.003
	연령	.008	.010	.022	-.023	.039	-.016	.008	.009	.024
독립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	.002***	.001	.057	.493***	.043	.300	.006	.011	.016
매개변수	우울							.031***	.007	.131
상수		-.027***	.020		1.107***	.109		-.061*	.028	
R^2		.040			.107			.055		
Adjusted R^2		.036			.104			.051		
R^2 변화량								.015***		
F		10.818***			31.360***			12.685***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etc.; 200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을 경유하여 비행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5-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을 경유하여 비행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11, CI[0.004~0.020]).

<표 5-8>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비행 [ln(개인 비행 항목 합산+1)]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011	.004	.004	.020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던 긴장, 그리고 부정적 감정 중 하나인 우울을 함께 고려하여, 긴장을 경험한 청소년이 부정적 감정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 관계에서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비행, 그리고 이 관계에서의 매개 원인을 확인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일반긴장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 6차년도 자료에서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 결측치를 제외한 1,311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통제변수와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알아보고 다문화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과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였다.

각 연구문제 및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

<연구문제 1>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수(문화적응스트레스), 종속변수(비행),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1>을 검증하였다. Model 1의 결과,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만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행의 상위개념인 외현화 문제 관련 선행연구까지 확장하여 연구결과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공격성으로 측정된 외현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김은경, 2016; 우희정, 2013))과 유사하였고,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농담에 대한 다문화스트레스(서봉언, 2019)나 문화적응스트레스(이원기 외, 2019)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들과 일치되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행을 일으키는 긴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과 공격성으로 측정된 외현화문제(홍진주, 2004)나 비행(조수연, 2019)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홍진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본 도구의 구성내용과 다른 언어능력, 문화적응, 문화유지 압박 등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했지만 대상자의 90%이상이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80%정도가 3년 미만의 짧은 거주기간을 지닌 대상자의 특성 때문으로 여겨졌으며, 조수연(2019)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안에 사회적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것을 간과하고 사회적 배제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미

어느정도 통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는 남자의 비행경험이 여자보다 높다는 결과들(서봉언, 2019; 송진영 & 배미경, 2015; 장일식, 2014; 최지원, 2020;)과 일치되었다. 그러나 거주 지역, 가족유형 및 연령 변수가 비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결과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행경험비율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박명숙 & 송사리, 2010), 가족결손이 도피비행과 폭력비행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신재헌, 2013)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의 지위비행 수준이 높았던 결과(송진영 & 백미경), 연령에 따라 비행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장일식, 2014)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

<연구문제 2>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우울), 종속변수(비행), 그리고 통제변수를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2>를 검증하였다. Model 2의 결과,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춘경 & 조민규, 2018; 이원기 외, 2019; 한지혜 & 김경희, 2020)과 일치하였으나 우울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봉언(2019)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이 높을수록 비행 경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에 대해서 긴장을 경험한 청소년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우울의 매개효과는 내용상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정 1단계의 경우,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는 Model 3 모형의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Model 1 모형과 같고 <연구문제 1>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앞서 서술한바와 같다.

둘째, 검정 2단계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단계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불안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송순택, 2015)이나 우울・불안・위축으로 측정된 내재화문제(우희정, 2013, 전혜숙 & 전종설, 2020; 진은영, 2015; 최선화, 2009) 그리고 우울(조혜영, 2020; 한광현 & 강상경, 2019)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들과 일치된 결과로서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긴장요임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검정 3단계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단계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을 투입하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어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을 통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비행 세변인간 인과관계를 구명했던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는 없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으로 부모의 방임(한지혜 & 김경희, 2020)이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래혁, 2020)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를 보고했던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는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의 영향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기에,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던 결과들과 함께 청소년의 긴장요인이 부정적 감정인 우울을 야기하고 이 우울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Agnew(1992)는 긴장의 유형은 다양하고 청소년은 이러한 긴장요인들로 인해 분노, 우울,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가 위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있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언급하는 긴장의 원천 중 하나인 부정적 자극의 경험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의 유형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긴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부정적 감정이 매개함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 인해 일반긴장이론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들의 우울에 관심을 갖고 우울을 감소 시켜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먼저,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우울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였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된 청소년 비행 연구들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양한 긴장요인들의 예측력파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긴장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의 영향까지 포함하여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므로 더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긴장요인으로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인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긴장상황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 심리정서 차원의 영향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바람직한 심리사회적응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함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연구의 연구대상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 간 청소년대상의 비행연구가 일반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은 이중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긴장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수 또한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향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자 사회구성원이기에 이들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필요한 실정인데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기에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한 점에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함의

먼저,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긴장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로 드러났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웃,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체계 내에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다문화수용태도가 팽배해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다문화에 대한 성숙한 수용태도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들이 친구(64%)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용주 또는 직장동료(28.1%), 이웃(12.8%), 모르는 사람(11.3%) 순으로 차별을 많이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기에 가정을 제외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라 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또래친구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다문화청소년의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함을 시사해 준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서 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문 강사파견을 통한 교육지원 등의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므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이와 연관된 더 많은 연구들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더 선입견을 지닐 수도 있을 비 다문화청소년 학생의 부모님도 성숙한 다문화 수용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예진(2017)은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 중 모르는 사람의 차별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미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 사회구성원의 성숙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우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발생에 좀더 관심을 두고 부정적 감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그들의 바람직한 심리정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연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주의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응답이 42.7%,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36.3%,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29.8% 순으로 나타나, 차별을 당해도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방식으로 인해 문화적응과정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닐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차별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신예진, 2017; 유지희 & 황숙연, 2018; 최옥주, 2017), 비슷한 맥락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전혜숙 & 전종설, 2020; 조혜영, 2020; 한광현 & 강상경, 2019)으로 보고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온.오프라인 상담, 맞춤형 상담, 심리.정서지원 및 상담치료비 지원 사업 등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중이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비율보다 스스로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훨씬 높은 점을 보았을 때, 신청을 받아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보다는 학교 혹은 다문화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다문화센터에 사회복지사 혹은 전문인력의 증원과 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꾸준히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긴장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을 개인 비행 항목 합산 점수로 조작화를 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측정에서 0의 값이 많이 관찰되었다. 종속변수에서 0의 값이 많을 경우 회귀분석을 시행하면 예측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0 값이 많고 본 연구의 비행변수의 경우 로그변환 전 비행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5.04 그리고 33.34이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값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자연로그 변환된 비행변수의 왜도는 3.115, 그리고 첨도는 10.071로 Kline(2005)이 제시한 왜도 3미만, 첨도 10미만의 정규성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근접했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종속변수의 특성 상 0에 가까운 값이 많아 왼쪽으로 치우쳐진 분포 형태를 보일 때(종속변수 왜도 값이 2이상) 변수 값을 자연로그를 취하는 등의 변수 변환의 방법도 있지만,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이나 감마회귀분석(Gamma regression analyis)를 통해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으니,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고려해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비행에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존재한다.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지위비행의 경험과 절도, 폭력 등의 범법적 비행의 경험에 대해 각 비행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개인 비행 항목 합산점수로 청소년 비행을 분석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행 항목의 중증도를 고려한 분석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차 자료 가공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들 뿐만 아니라 긴장과 비행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긴장요인들을 크게 목표달성관련 긴장, 긍정적 자극 소멸긴장, 부정적 자극 긴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극 긴장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에만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청소년의 긴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우울, 절망,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중요시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긴장요인들과 우울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 영향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객관적인 긴장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긴장상황에 놓인 개인의 감정, 성향, 사회적지지 등의 영향에 따라 개인이 상황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영향을 받기에 객관적인 긴장 상황과 비행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성향,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광의의 개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리고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생활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밝힌 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였고, 부모의 외국인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분석 대상 1,311명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수가 1,265명(96.5%)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보다 분석대상이 협소한 범위를 가졌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권나연. (2002). 일상에서의 긴장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일반 긴장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권순용. (2008). 중고교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의 인과적 관계. 중등 교육연구, 56(2), 93-118.

기광도. (2011).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령효과분석. 형사정책, 23(1), 127-152.

김경. (2010). 청소년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 청소년 복지 연구, 12(4), 1-21.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17(2),1-22.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김도희.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민족- 인종사회화, 문화사회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명숙, &이미현. (2019).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영향. 진로교육연구, 32(1), 19-34.

김미선. (2014). 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미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대학원.

김미영, 조윤정, &박병금. (2012).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22, 49-77.

김민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김선혜. (2012).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현실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김순연. (2013).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적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김원경. (2017).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의 성별 및 발달적 비교 연구. 학교사회복지, 39, 313-345.

김영광.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연구-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1, 101-123.

김정규. (2008). 청소년비행 원인의 비교분석-가부장적 요인과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0-68

김준호, &이동원. (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9-179.

_____.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65.

김준호, &정혜원. (2009).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분석. 형사정책연구, 78, 125-148.
김준호 외 (201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
김지현. (2013). 시설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2), 1-13.
김진성.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지속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려대학교 대학원.
김진아, &이형실.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2), 149-159.
김청송. (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2(3), 587-598.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501-521.
김태민, &최용민.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8, 71-96.
김해운. (2010).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행원인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김현정. (2014).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 연구 -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국민대학교대학원.
김혜진. (2017). 가족긴장이 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김희수. (2002). 가족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김희진. (2003).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남궁은숙. (2010).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대학교 대학원.
남은정. (2017). 청소년 우울이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남한희. (2011). 스트레스 요인이 청소년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노명숙. (2005).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대학교 대학원.
노성호. (2005).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검증. 형사정책연구, 63, 295-330.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10), 107-135.
대검찰청. (2019). 2019년 범죄분석,
문병욱, &신동준. (2008).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33-60.
문병욱, &황혜원. (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아동권리연구, 10(2), 127-150.
문선영. (2015).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방임과 비행 간 관계 비교연구: 학교생활부적응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경희. (2011).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위험요인과 적응유연성 조절효과검증. 서강대학교대학원.
박명숙, &송사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행경험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시지역과 농천지역의 비교연구-.
박상현. (2013).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에 관한 현상학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성훈, &정영실.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 : 일반적인 비행요인과 다문화 특성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1(3), 55-76.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박영애. (2010).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보호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용권. (2012). (IBM SPSS Statistics 19.0 활용)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신정.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배정숙. (2006).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백승지. (2003). 시설 거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행요인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변하도. (2013).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의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다문화, 9(2), 123-150.

성미숙. (200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및 비행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손세영. (2015). 청소년의 발달자산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KCYPS 자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손영민. (2015).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손윤진. (2014).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손지아. (2017).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 부모, 또래 및 교사요인의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 20(2), 497-517.

송순택.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송진영, &배미경. (2015).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교정복지연구, 39, 29-58.

신미희. (2018).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중학생의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법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서대학교 대학원.

신예진.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재헌.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재헌, &김상운. (2015). 초등학교 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227-235.

심미영. (2007). 한국 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유대이론의 검증. 경성대학교 대학원.

심현진. (2014). 청소년의 미시체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휴대폰의존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안윤숙, &김홍주. (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453-479.

어유경. (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 행동에 미치

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대학원.
엄연주. (2015). 한부모 가족 자녀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 가족 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_____.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오선영. (2012).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오윤경. (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우다빈. (2013). 정서인식 명확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정서조절과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이경님.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2(1), 1-13.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이근영, 최수찬, &공정식. (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이동호. (2011).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이래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

지, 51, 1-21.
이선아. (2014).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8), 273-300.
_____.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원광법학, 19, 17-33.
_____.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친구요인과 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 형사정책, 23(2), 121-142.
이성식, 전신현(2013). 청소년비행 설명에 있어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통제: 수정된 두 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4(4), 233-255
이세경, &김영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이승우. (201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자녀의 친구애착과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욱대학교 대학원.
이영주.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1(1), 65-90.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이재영, &공태명. (201). 가정·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연구, 17(3), 61-82.
이정선. (2020). 청소년의 외모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지민.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1-24.

이지원. (2019). 청소년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철. (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3), 237-257.

이현경.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이현직. (2014). 청소년의 긴장과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이희춘. (2012). 가출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임성택, 김진호, &정의석. (201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완벽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243-260.

임은미・정성석(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장기적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연구. 한국아동학회, 25(4), 191-200.

우희정.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51(2), 195-206.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유지희, &황숙연.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Ⅱ.

윤경희, &양문승.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경험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313-338.
윤경희, &장일식.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10(1), 147-178.
윤진영. (2003). 아동기 학대경험과 보호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장경수.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장사경. (2008). 아동학대의 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장일식.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장형순. (2019). 비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전영실, 신동준, 박상희, &김일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전홍빈.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 휴대전화 의존 및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전혜숙, &전종설(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223-255.
정누리. (2019). 청소년의 비행태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정효숙. (2017). 다문화가족의 관광동기와 관광지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베트남.중국.필리핀.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주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성별차이 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조수연. (2019). 사회적 배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 10(5), 325-340.
조춘범. (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및 부모-자녀상호작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2(1), 93.121.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571-590.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303-326.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121-148.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22(2), 363-383.
최선화.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대전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최영인, &염건령 (2005). 범죄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 서울, 백산.
최영자. (1999).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폭력비행에 미치는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폭력비행 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최옥주.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부모관계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재훈. (2014).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의 관계: 도덕적 판단력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년학연구, 23(5), 357-378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571-590.
최윤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최재용, 한보영, &이윤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8(1), 35-65
최지애. (2009).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비행의 관계에서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지원. (2020). 다문화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진실. (2017).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부적응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부정적감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7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진주. (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황미에. (2009).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205-226.
황민혜. (2018). 워킹맘의 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 직무소진과 일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지현, &이진숙. (2007).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대처행동 및 우울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55-168.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64, 145-164.
황성현. (2009).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접근.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황성현. (2015). 청소년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225-250.
황정하. (2018).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59, 5-30.
허소담. (2020).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 국외 문헌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Agnew, R., & Brezina, T. (2018). Juvenile delinquency: Causes and control. / *Robert Agnew, Timonthy Brezina.*

Agnew, R., Brezina, T., Wright, J. P., & Cullen, F. T. (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40(1), 43-72

Akers, R. L., & Jennings, W. G. (2015). Social learning theory. In A. R. Piquero (Ed.), *The Handbook of Criminological Theory,* 230-240.

Akse, J., Hale, B., Engels, R., Raaijmakers, Q., &Meeus, W. (2007). *Cooccurrence of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personality types.* EuropeanJournal of Personality, 21(2), 235-256

Church, Weasley., Warton & Taylor, T. (2008).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7*(1), 3-15.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order*. New York: Springer

Gujarati, D. N., & Porter, D. C. (2009). *Basic econometrics*. Boston, McGraw-Hill Irwin.

Glassner, S. D., & Cho, S. (2018). Bullying victimization, negative emotions, and substance use: utilizing general strain theory to examine the undesirable outcomes of childhood bullying victimizat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21*(9), 1232-1249.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Press.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mer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pp. 1183-1192.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17-34.

Hurwich-Reiss, E., & Gudino, O. G. 2016. *"Acculturation Stress and Conduct Problems Among LatinoAdolescents: The Impact of Family Factor."*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4(4): 218-231.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Mazerolle, P., & Maahs, J.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4), 753-778.

Mazerolle, P., & Piquero, A. (1997). *Violent responses to strain: An examinationof conditioning influences.* Violence and Victims, 12(4), 323.

Moon, B., Morash, M., & McCluskey, J. D. (2012). General strain theory and school bullying: An empirical test in South Korea. Crime &Delinquency, 58(6), 827-855.

Piquero, N. L., & Sealock, M. 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Quarterly, 17(3), 449-484.

Romero, A. J., & Roberts, R. E. (2003). *"The impact of multiple dimensions of ethnic identity on discrimin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11): 2288-2305.

Reuben M. B., & David A. K.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Senna, Joseph & Siegel, Lawwy.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7thed.),Stamford(CT):Wadsworth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3) 인터넷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https://kenbenoit.net/assets/courses/ME104/logmodels2.pdf, 2020. 11. 12 검색.

Abstract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Cho, Kangh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General Strain Theory was set up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1,311 multicultru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6th yea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th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mainly used, and 4 steps of Baron

and Kenny(1986) were examined and bootsrapping was performe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ed. First, accultrative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linquency of multicultral adolescents. It means the higher accult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y. Second, depress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hich means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multiculrual adolescent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y. Third, depress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linquency of multiculral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depression as well as acculturative stress in the approach to reduc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 acculturative stress, delinquency, depression, General Strain Theory

Student Number: 2018-21549

.